

2020년 겨울철 대비 가금농가 일제 방역점검 중간 결과

출처 : 농림축산식품부

◆ 농림축산식품부(장관 김현수)는 겨울철 조류인플루엔자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고자 4월부터 전국 가금농가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, 그간 점검결과 방역 미흡사례가 다수 확인되었다고 밝혔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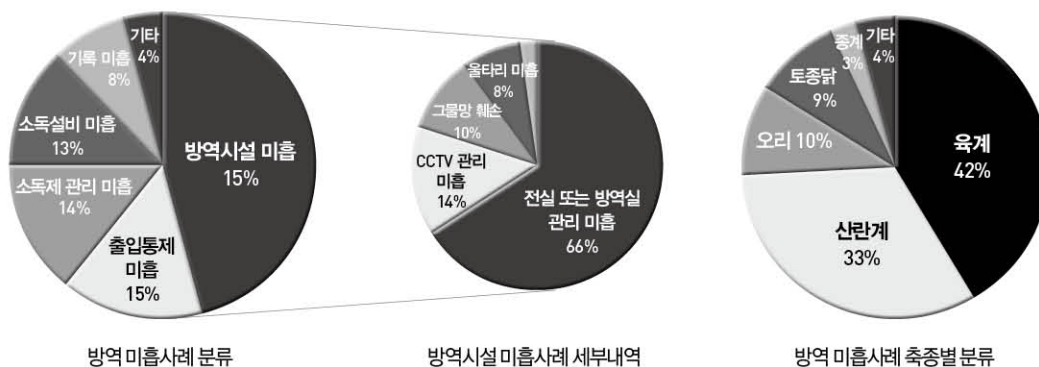
○ 농식품부와 지자체 점검반은 6.30일까지 전국 가금농가(운영 중인 농가)의 약 55%인 2,359호를 점검하였고, 총 171건의 방역 미흡사례를 확인하였다.

○ 방역 미흡사례를 분석한 결과, 전실·그물망·울타리 등 방역시설 관리 미흡이 가장 많았고(46%, 78건), 사람과 차량에 대한 출입통제 미흡(15%, 26건), 소독제 관리 미흡(14%, 24건), 소독설비 작동 불량(13%, 23건) 등이 주요 사례로 나타났다.

* 이외 소독 기록이나 출입 기록 미흡, 축사별 전용 강화미착용 등 사례 확인

○ 미흡사례가 확인된 농가 중 법령 위반 농가(15호)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하고, 방역·소독시설 일부 보완이 필요한 농가에 대해서는 시정명령과 현장지도를 실시하였다.

《 2020년 동절기 대비 가금농가 일제 방역점검 중간 결과분석 》



◎ 농식품부는 지난 5월 마련한 올겨울 대비 방역대책에 따라 8월까지 전국 모든 가금농가에 대한 점검을 완료하고, 10월 이전 방역 미흡사례가 확인된 농가에 대한 재점검을 통해 보완 여부를 확인하는 등 사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.

○ 특히, 방역·소독시설에 대한 정비·보수 등 시정명령을 받은 농가가 미흡사항을 보완하지 않는 경우, 관련 법령에 따라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행정처분할 계획이다.

◎ 농식품부는 해외에서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이 급증*함에 따라 올겨울 대비가 중요한 상황으로 가금농가는 자체 방역점검을 통해 미비점을 사전에 보완하는 등 철저한 방역관리를 당부하였다.

*'20년 해외 주요 발생현황(~6.22): 유럽 331건(전년 동기 대비 33배 증가), 중국·대만 등 주변국 127건(전년 동기 대비 2.5배 증가)

** 전 세계 발생현황: [18년] 540건 → [19년] 234건(6.22일까지 146건) → [20.6.22.일까지] 482건

*** 국내 발생현황(16년 이후): '16/17 421건 → '17/18 22건(18.3.17. 이후 없음)

○ 특히, 조류인플루엔자 주요 전파요인인 축산차량과 사람의 출입을 최소화하고 전실·올타리·그물망 등 방역시설과 소독시설 관리, 소독제 관리, 축사별 장화 갈아신기 등 기본 방역수칙을 빠짐없이 준수해 줄 것을 강조하였다.

